



[10년 뒤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] AI 대체 가능 직업 상위 10위권, 회계사 등 전문직 대거 포함

- 최근 국민일보가 AI·로봇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10년 뒤 AI에게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, 그 내용을 살펴본다.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1위는 '매표원 및 복권판매원'이었고, 이어 '주차관리원 및 안내원', '회계사' 등의 순이었다.
- 특히 상위 10위권 안에 회계사(3위), 세무사(7위), 변리사(8위), 변호사(9위) 등 전문직이 4개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. 이 가운데 회계사는 2016년 동일 조사에서 40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위까지 상승해 AI로 인한 전문직 영역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.

[그림] 10년 뒤 대체 가능성 높은 직업 Top 10.

1위	매표원 및 복권판매원	공동 5위	투자 및 신용 분석가
2위	주차관리원 및 안내원	7위	세무사 (2016년 순위 22위)
3위	회계사 (2016년 순위 40위)	8위	변리사 (2016년 순위 34위)
4위	주유원	9위	변호사 (2016년 순위 36위)
공동 5위	금융 자산 운용가	10위	증권 및 외환 딜러

※출처 : 국민일보, 밀려나는 '스'자 직업... 회계사, 40위 → 3위로, 2026.03.17. (<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1773649956&code=11131100&cp=nv>)